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미국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서 미국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투표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할리우드의 아카데미 시상식 장소인 돌비 극장에서 열린 준준결승전엔 모두 12팀의 출연자가 참가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아메리카 갓 탤런트' 준결승 진출 미국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

시청자들 투표로 이뤄져
31일 저녁 생방송으로 열려
결승은 내달 14일 개최
우승하면 상금 100만 달러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미국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서 미국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투표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할리우드의 아카데미 시상식 장소인 돌비 극장에서 열린 준준결승전엔 모두 12팀의 출연자가 참가했다.

가장 마지막 출연팀인 WT시범단이 무대에 오르자 이미 지난 출연 영상으로 유명한 시범단을 향해 많은 관객들의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시범단은 급변하는 문명수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이 태권도 정신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세계와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주제로 3분여동안 공연을 펼쳤다.

공연 직후 다시 한 번 관객들과 사이먼 코웰, 소피아 베르가라, 하이디 클룸, 하위 맨델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오늘 공연 중 최고의 공연이었다고 극찬을 했다.

심사위원들은 "시범단이 만약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가까이 티켓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은 컴퓨터 그래픽의 힘에 의존하는데 시범단은 실제"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투표 결과 발표는 경연 다음날인 25일 같은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열렸다. WT 시범단의 준결승 진출 결과에 모든 심사위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수를 보냈다.

준결승은 오는 31일 저녁 생방송으로 열리며 최종 파이널인 결승전은 9월 14일에 개최된다. 우승팀 한 팀에게는 상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가 주어진다.

시범단은 2020년 1월 이탈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해 골든 버저를 받아 결선에 진출한 바 있다. 이후 WT 시범단 영상을 본 아메리카 갓 탤런트 측의 거듭된 출연 요청으로 지난 봄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오디션에 출전했다. 시범단은 사회자로부터 골든 버저를 획득하고 바로 준결승에 직행해 시청자 투표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현재 16시즌이 방영되고 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과 달리 정해진 주제가 없어 다양한 참가자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는 쇼 프로그램으로 매년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다.

/뉴시스

MLB 포스트 시즌 내달 6일부터
월드시리즈 1차전은 10월 27일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야구 일정이 확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6일(한국시간) 올해 포스트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가을야구는 오는 10월 6일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경기로 문을 연다. 이날에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펼쳐진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는 10월 8일 시작되고,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는 9일부터 열린다. 디비전시리즈는 5전3선승제로 진행된다.

7전4선승제의 챔피언십시리즈도 아메리칸리그가 먼저 시작한다. 아메리칸리그는 10월 16일, 내셔널리그는 10월 7일부터 챔피언십시리즈에 돌입한다.

양대리그 챔피언이 맞붙는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는 10월 27일 막을 올린다.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팀 중 정규시즌 승률이 더 높은 팀의 홈 구장에서 1차전을 치른다.

만약 월드시리즈가 7차전까지 간다면 7차전은 11월 4일에 열린다.



/뉴시스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기간 연장

태권도진흥재단, '내달 24일까지'
참가 희망자들의 연장 요청 반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비대면 경연 방식으로 진행되는 '2021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이하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을 기존 9월 8일에서 9월 24일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 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여건을 마련해 주교자 연장을 결정했다.

최근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 희망자들로 부터 예선 심사에 필요한 영상 촬영 등에 대한 문의와 함께 모집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참가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9월 26일 진행되는 예선 심사는 접수 시 제출한 영상물 평가를 이루어지고 본선

은 10월 9일과 10일 예정대로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안다"라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 접수와 인내는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웹사이트(<http://www.2021tc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이강인, 발렌시아와 결별 임박

10년 인연 마침표 찍나?

외신들, 차기 행선지로 레알 마요르카 등 거론 중

선택지가 좁혀졌다.

이강인이 10년 간 인연을 맺어온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는 26일(한국시간) 공격수 마르코스 안드레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브라질 출신인 안드레의 가세로 발렌시아는 비유럽 선수가 4명으로 늘었다. 비유럽 선수를 최대 3명까지 1군에 보유할 수 있다는 프리메라리가 규정에 따라 발렌시아는 4명 중 1명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강인이 그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애널 머시 발렌시아 회장은 안드레를 등록하기 위해 이강인을 정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고 굵게 답했다. 회장까지 직접 이적을 천명하면서 이강인의 발렌시아 생활은 곧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렌시아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창립적인 축구를 구사하던 이강인을 유스팀으로 스카우트했다.

차근차근 꿈을 키워온 이강인은 2018년 10월 국왕컵을 통해 한국인 최연소 유럽 1부리그 출전 기록을 세웠고, 2019년 발렌시아와 1군 정식 계약을 맺었다.

그해 국제축구연맹(FIFA) U-20 폴란드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MVP)적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탄탄대보를 걷는 듯 했던 이강인은 소속팀에서 예상 외로 별다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선발이 아닌 주로 교체 카드로 활용되면서 기량을 발휘하기 어



려웠다. 올 시즌 개막 후 치른 두 경기에도 모두 빠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의 차기 행선지로 레알 마요르카 등을 거론 중이다. /뉴시스

장수 JANGSU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www.장수몰.com

NAVER 장수몰

장수몰 MALL JANGSU MALL